



3대리구 대덕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2주일 2022. 08. 28. (다해) 제2337호

제1독서 집회 3,17-18.20.28-29 화답송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제2독서 히브 12,18-19.22-24ㄱ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O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4,17-14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다시 가르쳐 주시는 친교의 세상살이



교구 사목연구소 부소장 | 최석환 요셉 신부

“세상 말세다. 이제 신부도 속지 않네.”

어떤 사람이 새 신부님과 면담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못마땅해합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무슨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소연하면 새 신부님들은 잘 속았는데, 이제는 그들도 속지 않는다고 ‘사기꾼’은 한탄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많은 사제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속아줍니다. 혹시나 정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이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살다가 보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적 삶의 방식 안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성당 문밖만 나가도 무엇이 경제적인지,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멋들어진 광고에 현혹되고 마는 우리이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시각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조금 덜 얽아진 지갑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어디선가 이러한 이유로 상처받은 자신과 이웃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숨지으며 하늘을 넋지시 올려봅니다. 우리 신앙인이 사는 세상은 단지 그러한 장소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존의 세상 방식에 끌려가지 말고 그 너머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느님의 방식을 추구해 보라고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물론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자 하기도 하셨겠지만, 이 대목은 세상에 통용되는 방식을 넘어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적극적인’ 친교의 실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세상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즉, 그분과의 친교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은 자족하는 이들보다 오히려 한숨짓고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낮은 자리에서 발견되었지요. 그들의 세상 생각과 달리 하느님께서서는 낮고 고통받는 사람들과도 이미 친교하고 계시는 분임을 예수님께서서는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세상의 눈높이를 거두고 주위를 둘러보면 부유하고 가난하고 높고 낮음을 떠나 버림받고 상처 입은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 인간적인 어리석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친교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 또한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궤**



피조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피조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는 올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의 주제이자 초대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는 피조물이 내는 목소리에서 일종의 불협화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우리 창조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우리의 착취에 슬퍼하는 비통한 호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누이이며 어머니인 지구가 울부짖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소비주의적 만행의 희생양이 되어 흐느끼며 우리의 남용과 지구의 파괴를 멈추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울부짖는 다른 피조물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고, 그들의 찬양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가장 가난한 이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기후 위기를 접하게 되고, 점점 더 극심해지고 빈번해지는 가뭄, 홍수, 허리케인, 혹서의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자매인 원주민들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경제 이득만을 추구한 결과로 원주민들은 선조들의 땅을 모조리 침략당하고 파괴당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의 탄원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행동들로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울부짖으며 우리 지구의 생태계 붕괴를 막거나 적어도 제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달라고 우리 어른들에게 애타게 요청합니다.

이처럼 비통에 찬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우리 생활 양식과 파괴적인 체계를 뉘우치고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회개의 요청에 따라 날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욱더 크게 느낍니다. 이는 그저 개인들에게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생태적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이기도 합니다.”(「찬미받으소서」, 219항) 이러한 점에서, 국가들의 공동체도 특히 환경 문제에 관하여 애쓰는 국제연합 회의들에서 최대한 협력하는 자세로 다짐하고 행동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2022년 11월에 이집트에서 열릴 제27차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파리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에 모든 이가 참여할 기회를 의미합니다.

12월에 캐나다에서 열릴 제15차 국제연합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생태계 파괴와 생물종의 멸종을 막으려는 새로운 다자간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선의의 국가들에게 줄 것입니다.

제27차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제15차 국제연합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기후 변화의 위기와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이중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데에 인류 가족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찬미받으소서」, 13항 참조) 올해 창조 시기 동안 기도합시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한(로마 12,15 참조) 바오로 성인의 권고를 마음에 새겨 피조물의 비통한 호소에 우리도 함께 읊시다. 이 호소를 듣고 행동으로 응답하여 우리와 미래 세대들이 피조물이 부르는 희망과 생명의 아름다운 노래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합시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황, “선교는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는 일”

2022년 8월 10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정숙

“선교한다(스페인어: misionar)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하느님께서 선물하시는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스페인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아르헨티나 리오쿠아르토교구의 성모 승천 성당의 연대 선교 참가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함께 이루는 꿈

청소년과 성인들을 포함한 30명은 지난 3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한 주간 동안 ‘꿈은 함께 이루는 것 (I sogni si costruiscono insieme)’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대 선교에 참여했다. 이 주제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8항에서 발췌한 것이다. 살타·빅토리아 에스테·오란교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대 선교는 마리아노 코르데이로 신부가 계획했다. 교황은 마리아노 신부에게 인사를 전하는 한편, 모든 이를 위한 축복과 감사 인사를 보냈다. “여러분이 한 일에 감사하고, 그 일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선교활동의 순간

교황은 그들을 위한 기도를 약속하는 한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이어 “선교활동으로 돌아가라.”라고 당부했다.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

선교활동은 영양실조, 식수 부족, 의료·보건 지원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 한 곳인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국경의 산 가운데 있는 위치(Wichi) 원주민 공동체에서 이뤄졌다. 마리아노 신부는 “우리는 그들을 방문해 세례성사, 미사, 축일을 거행하고, 가정들과 동행하며, 아이들과 놀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삶과 신앙을 나누며, 우리 원주민 형제들의 문화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가난한 이들 중 가장 가난한 이를 만나러 간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형제들의 얼굴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심장이 약동하는 곳으로

마리아노 신부는 “우리의 소망은 이 원주민 공동체와 우정을 함양하고 그들의 동반자가 돼 그 우정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년 두 번씩 그들을 방문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 가난한 이들의 나라, 작은 이들의 나라의 심장이 약동하는 변두리 산마일에 도달하기 위해 5,000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합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2년

성삼일 전례를 거행하다

3월 27일 수요일

선교사들을 위해 서울의 분도 수도원에 주문한 침대들이 오늘 도착했다. 이상적인 것은 못된다.

4월 2일 화요일

줄리앙 신부와 카넬, 김 요셉[金紋玉], 김 아오스딩[金承淵] 신부가 모레 있을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

4월 4일 건립성체대례(성목요일)

7시에 훈화를 하고, 처음으로 대구에서 주교미사와 성유(聖油)축성을 했다.

4월 5일 예수수난(성금요일)

7시에 훈화를 하고, 이날의 미사(영성체만 있는)를 집전했다. 3시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관한 강론과 엄숙한 성로신공(聖路神功, 십자가의 길)을 바쳤다.

4월 6일 망부활(성토요일)

훈화에 이어 주교에 의한 14명의 성인 영세식이 있었다.

4월 7일 예수부활

장엄미사를 드렸다. 성체강복 후에 견진성사가 있었다. 저녁때에는 환등기의 영사가 있었다.

4월 14일 일요일

악대를 위해 주문한 악기들이 도착했다. 이를 위해 얼마 전부터 솔페지오(solfège : 계명으로 하는 노래) 강의를 들은 젊은이들은 열광하면서 악기들을 받았다. 이 악대를 책임진 사람은 무세 신부이다.

4월 18일 목요일

서울로 가는 리널 신부가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신부를 동반하고 대구에 들었다. 피정 동안에 지도서에 대한 토의와 표결이 있었다. 적시에 돌아온 페네 신부가 이 특별 위원회의 서기(書記)가 되어 특별히 만들어진 노트에 진행 사항을 모두 기록했다. 리널 신부가 훈화를 했다.

2022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사랑으로 창조된 세상의 울부짖음을 들읍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바스의 2021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산밀 북카페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의 유지를 이어가는 ‘앞산밀 북카페’는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인문학 공부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발전시키려는 문화공간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강 : 9월 14일 (수)

강좌 :

| 요일 및 시간 | 담당 | 내용 | 비고 |
|---------|------------|-----------------|-------|
| 월 10:30 | 박용욱 신부 | 그리스도교와 시각예술 | |
| 화 10:30 | 최성준 신부 | 동양철학의 이해 | |
| 수 10:30 | 이 크레센시아 수녀 | 나부터 시작하는 생태적 회심 | 생태 학교 |
| 수 14:30 | 유 클라라 수녀 | 오후의 영화 산책 | 영화 상영 |



장소 : 앞산밀 북카페 4층 (영화 상영은 3층)

문의 : 앞산밀 북카페 053-622-1900

*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과도한 냉방보다 적정 실내 온도 맞춰 생활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85호 정답

1. 살아, 힘, 혼과 영, 마음의 생각 2. 멜키체덱 3. 믿음 4. 실천

내가 먼저 양보의 마음을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 | | | |
|-----------------|----------------------|------------|-----------------------|
|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8월 29일(월) 11:00 범어성당 | 한국여기회 회원미사 | 9월 3일(토) 11:00 앞산밀북카페 |
|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9월 3일(토) 10:00 월성성당 | - | - |

수도회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9.4(일) 10:0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 19~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교구성체조배회 월례미사

일시: 9.3(매월 첫째 토) 10:00 미사

장소: 지산성당

내용: 성체현시, 강복

707차 주일 성령묵상회 (주일 3회 과정)

일자: 9.18, 9.25, 10.2 (매주 주일)

시간: 9:30~18:30 / 비용: 12만원

장소: 성령봉사회관 (고령 월막피정의집)

차량: 설화명곡역 2번출구 8:40 출발

문의: (054)954-3091

피규린(성경인물) 성경공부반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성경공부

일시: 9.8~11.3 매주 목 10:00~12: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

문의: 783-9817 / (010)2889-3342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463-5191

썬벨 성서 모임 수강자 모집

개강: 9.5(월) 10:00 모세오경

9.6(화) 10:00 예언서

장소: 샬트르성마로소녀원(대명동)

문의: (010)5726-1733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기도모임

일시: 9.24(토) 13:00~18:00

장소: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마오로관

지도: 허성준 신부(성베네딕도회)

준비물: 성경 / 회비: 15,000원

문의: (010)5472-260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칠곡가톨릭병원 건강검진센터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검진 및

종합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 전화: 320-2061

온라인 예약: www.tcmcch.co.kr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교구 외 | 기타 알림

2023학년도 가톨릭상지대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1차 모집: 9.13(화)~10.6(목)

문의: 입학홍보처, (054)851-3021~2

http://ipsi.csj.ac.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http://www.holyfac.or.kr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2년 2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8.30(화) 각 강좌 요일별 개강 | **신청:** 현장 및 전화 접수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남산동) 강의동 2층 | **수강료:** 과목당 7만원(2과목 이상 과목당 6만원) |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 시간 | 화 | 수 | 목 | 금 |
|---------------|-------------------|-----------------|----------|---------------|
| 10:00 ~ 12:00 | 신앙언어와 인문학 | 종교철학 산책 | 교회론 | 신약성경 입문 철학 |
| 14:00 ~ 16:00 | 신학 입문 오늘의 신앙고백 | 현대영성과 토마스 머튼 | 시편과 지혜문학 | |
| | 교회법 | 요한묵시록 | | |
| 19:30 ~ 21:30 | 가톨릭교회 교리서해설 | 청년학교 | 공관사도 | |

※ 모든 수업은 다른 강의실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 **Doum** 카페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을 검색하세요.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신상도(프란치스코) 신부
1968년 8월 29일
- 최영수(요한) 대구교
2009년 8월 31일
- 김문옥(요셉) 신부
1941년 9월 1일
- 이명우(야고보) 몬시뇰
1984년 9월 1일
- 박상태(루도비코) 신부
2004년 9월 3일
- 김규태(디모테오) 신부
2004년 9월 3일
- 장태식(리노) 신부
2012년 9월 3일

교구 | 대리구 알림

군위묘원 2차 관리비 납부 안내

2013.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서는 묘원 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분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군위묘원 성묘 안내

추석 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를 하여주시고, 묘주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구청 관리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리구 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곡성당: 마태오, 마르코 (수19:30)
월성성당: 모세오경 (목14:30)
이곡성당: 마태오, 마르코 (목14:30)
개강: 9.14(수)부터
문의: 641-5678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신앙여정, 서양화, 오카리나, 발성법, 난타, 고전무용, 장구,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프랑스자수, 사범꽃꽂이, 정리수납전문가, 칼림바, 미술심리상담사 / 신청: 254-6115

2023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수시 최초 합격자 전원 장학금 지급 -인문 100만원, 자연·예체능 150만원
2,556명 수용, 지역 최고 수준 기숙사 지하철 1호선, 대구가톨릭대역 개통(2024) 입학상담: 850-2580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삼동 평생교육원 안내

성인 피아노교실(디지털): 화, 금, 토
발성교실/성가부르고배우기: 월, 목, 금
평생교육원합창단모집: 화
CEO합창단: 수(모든장르 독창과 합창)
문의: (010)3512-1565

전인병원 갤러리 전시작가 모집

2023년 전인병원에 작품전시를 희망하는 작가님을 초대합니다.
문의: 670-5986

가톨릭학술원 전현호 신부 초청특강

일시: 9.1(목) 17:30 (미사시작)
장소: 교구청 꾸르실료 회관 5층 대성당
제목: 인간의 인권과 환경 / 강의무료
문의: 사무총장, (010)7190-1258

바로로말 영성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마음돌봄:
9.16(매주 금 6주간) 10:00~12:00
황혼속으로-아름답게 나이 들기:
9.16(매주 금 6주간) 14:00~16:00
신청문의: (010)6681-5185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391차 ME주말: 9.2(금)~4(일)
392차 ME주말: 10.28(금)~30(일)
12차 쉐신주말: 10.15(토)~16(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제4회 교구장기 배드민턴 대회

일시: 10.9(일) 9:00~17:00
장소: 대구 남구 국민 체육센터



좌측 QR 코드로 신청 및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방역소독(24시 긴급출동)
청소, 에어컨·물탱크청소, 경비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전순례(비비안나) 신원섭(바로로)

24시간 요로결석
비엔 비뇨의학과 의원
피부과
비엔 비뇨의학과
UROLOGY · DERMATOLOGY
대표원장 전문의 이 윤 형 (요셉)
삼정브리타시 건너편 올리브영 3F
Tel. 053 552 2525

대한요양병원
재활전문 / 암 / 노인성질환 / 투석요양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297(남산동)
(경복역고 건너) Tel. 053.218.8800
병원장 김 봉 일(파우스티노)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010-7125-8849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및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분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안마바우처
대구 전지역 대환영
근골격계·신경계·자세교정
053)425-7695~6
38년 전통 약손 이 루카